

부위원장 모두발언

2020.3.10.(화) 10:00~10:05

금융위(대회의실 16층)

금 융 위 원 회

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1 인사 말씀

-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.
 -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오늘 공인회계사시험 개선 TF Kick-off 회의에 참석해 주신 기업, 회계업계, 학계, 금감원, 한공회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- 지난 2.23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, 현재까지 별 탈 없이 시험이 마무리되고 있는 점에 대해 금감원 및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.
- 정부는 新외부감사법 시행('18.11월) 이후 각종 회계개혁 조치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진해 오고 있으며
 - 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필요사항이 있다면 앞으로도 적극 의견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.
- 회계개혁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파수꾼인 양질의 공인회계사를 선발·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
 - 지난 해에 시장의 수요 등을 감안 금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을 1,100명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.

2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선 필요성

- 아시다시피,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
‘07년 이후 현재까지 14년간 시행되면서
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
- 그동안 시장에서 현행 시험제도를 둘러싼
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,
- 작년 11월에 있었던 공인회계사
자격제도심의위원회(19.11.18)에서도 시험제도가
시대변화 등에 걸 맞는지 점검해 볼 때라는
다수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.
-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금이
시험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
적절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.
- 일각에서는 대학 현장에서
IT관련 과목 개설 등이 미흡하여
좀 더 시간을 두고 시험제도 개선을
살펴보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- 그러나, 대학의 준비를 기다리기보다는
먼저 시험제도를 개편하고
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면

- 대학 등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
준비를 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것이
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합니다.
- 시험제도 개편에 있어 전문지식 측정 외에
향후 회계전문인력이 시대변화에 맞춰
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
- 시험제도와 실무수습교육제도 등을
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
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- 구체적으로 정보기술(IT) 발전 등 변화하는
회계환경하에서 회계전문가로서 IT 활용능력을
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
-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IT 역량 측정을 위해
데이터 분석 등을 19년부터 출제범위에 포함한
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.
- 또한, 부실감사 외에 新외부감사법 시행이후
회계사의 갑질논란 속에 회계사의 직업윤리 교육
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.
-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
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3 당부 및 마무리 말씀

- 앞으로 약 5개월 간,
TF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
역량과 지식을 집중하여
 - 현행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를
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
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.

- 그 과정에서 시험제도 개편은
기업·회계업계라는 수요자 외에
 - 실제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입장도
충분히 균형있게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.

- 서두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, 바이러스 감염병은
차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.
 - 이번 경험을 계기로 제도개선 외에
시험시행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
함께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.

- 오늘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주시면
향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
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
 - 이번 TF가 생산적인 논의의 場이
되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 (끝)